독자투고

안재구교수 구속과 관련하여

학문연구와 강의의 자유는 보장돼야

"너희중 자유로운 자, 그에게 돌을 던져라"

구국전위의 총책이라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검찰에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안재구 교수님이 주체사상을 강의했다고 한다. 바로 우리 대학교에서 '현대사회와 과학'이라는 강의시간에 붉은 사상을 전파했다고 한다.

비록 지금의 한국 사회의 대학들이 취업학원이라는 오명에서 벗어 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학이라는 곳은 본질적으로 학문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학문을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외없는 법칙이 없으며, 학문영역에서 절대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중세를 예로 든다면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을 발표했을 때 모두들 그를 비웃었고, 교회의 이름으로 그를 단압하기도 했다. 시대적 정설로 인정되더라도 모두가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념적으로 분단되고 대립된 한국 사회에서 특히 사상의 영역에서 연구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절대적인 사상만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사회와 사상의 진보를 가로막는 행위이며, 그러한 사회에서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대학이라는 곳은 그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적 사회보다 더욱 자유롭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체계의 문제라고 해도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체계의 문제에 대해서 더욱 연구해야 할 곳이 대학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안재구 교수의 주사강의와 관련한 파문은 그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본질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와 언론의 요란한 파대포장이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체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간의 과정을 돌이켜 보자. 남총련 학우들의 상경투쟁이 광주에서 홍익대로 이어지고, 이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검거선풍 이후에 전국기관치협의회의 과업투쟁이 있었고, 북핵문제와 남북정상회담이 논의되었으며 김일성의 갑작스런 죽음이 있었다. 남북긴장완화의 결정적 시기에 김일성의 죽음은 한국사회를 다시 한번 경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조문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고, 박홍 신부(서강대 총장)의 주사파 발언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철도파업때는 안재구교수는 노동운동의 배후로 지목되다가, 박홍 신부의 매카시적인 언어의 폭력이 난무할 때는 주사파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박홍 신부가 대학에도 주사파 교수가 있다는 발언을 한 직후, 검찰은 경상대를 지목했고, 결국 경상대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와 관련해서는 8월 31일 최인석 관사의 영장기각으로 일단락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현 정권이 UR국회비준과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전보전영을 모두 제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여러 사건이 파노라마처럼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가진 의미이다. 어떠한 사회도 이러한 것이 보장되지 않을 때, 결국 그 사회는 정체되기 마련이고 몰락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 경제시대에서 우린 저마다 스스로의 길을 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대학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이러한 자유가 침해된다면 결국 우리가 살아갈 사회의 미래가 침해된다는 것과 동일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사회의 미래이다. 대학은 교육의 정점에 서 있으며 그 어느 단의 결정적 시기에 김일성의 죽음은 한국사회를 다시 한번 경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조문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고, 박홍 신부(서강대 총장)의 주사파 발언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철도파업때는 안재구교수는 노동운동의 배후로 지목되다가, 박홍 신부의 매카시적인 언어의 폭력이 난무할 때는 주사파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박홍 신부가 대학에도 주사파 교수가 있다는 발언을 한 직후, 검찰은 경상대를 지목했고, 결국 경상대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와 관련해서는 8월 31일 최인석 관사의 영장기각으로 일단락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현 정권이 UR국회비준과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전보전영을 모두 제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여러 사건이 파노라마처럼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보다도 사회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곳이다. 대학을 수호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는 것이다.

경상대의 '한국사회의 이해'와 우리학교의 '현대사회와 과학'은 전국 대학의 수많은 대학 중에서 겨우 두 곳에서 일어난 두 개의 강좌에 대한 것이지만, 이 사건은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금은 겨우 두 과목일지 모르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사태가 이후에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학문사상의 자유가 더욱 제약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만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여지를 남겨둔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김 명 수
〈정경대 정외·2〉

알림터

교수동정

김동현교수 방일

【서울캠퍼스】▲김동현(약대·약학)교수=5일부터 11일까지 전 일본생화학회 클로키올 특강발표차 일본방문

【수원캠퍼스】▲변승호(자과대·화학)교수=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싱크로트론(Syncrotron)장치를 이용한 고체표면에서의 반응 연구차 방미

취업안내

취업정보실로 문의

◆금강고려인력관리위원회=신입사원○○명, 전공제한없음, 9월7일까지 543-1141 연락, 공채 ◆동양섬유=사무직○명, 전공제한없음, 9월10일까지 757-9261연락, 공채 ◆한보그룹=신입사원○명, 전공제한없음. 9월8일까지 560-6043연락, 공채 ◆한라중장업=신입사원○○명, 전공제한없음. 9월10일까지 032)880-3249연락, 공채 ◆럭키금성=신입사원8명, 법학3명, 경영5명, 9월7일까지 787-1234연락, 추천 ◆성업공사=신입사원5명, 법대2명, 정경대3명, 9월6일까지 555-0213, 추천 ◆서울상호신용금고=신입사원6명, 문리대1명, 법대2명, 정경대3명, 9월7일까지 540-6688, 추천 ◆나산실업(주)=신입사원15명, 문리대1명, 법대3명, 정경대6명, 수원5명, 9월10일까지 780-5220, 공채 ◆에스티엠(주)=신입사원○명, 전공제한없음, 9월29일까지 787-1976, 공채

등 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박소희(지리·1) ▲조은영(국문·94) ▲김병일(영문·4) ▲이성은(영문·89) ▲이준섭(화학) ▲심재완(법·1) ▲박철수(법·2) ▲김주용(경제·2) ▲김문철(회계) ▲김병록(회계) ▲신윤선(미교·4) ▲문지영(가관·1) ▲최필관(가관·2) ▲가인하(간호·2) ▲은영규(의예·2) ▲남지희(약·3) ▲박세은(기악·4) ▲신홍기(국선관·2년) ▲구자평(삼의원·422) ▲임순택(삼의원·309)

【수원캠퍼스】▲이희경(불문·4) ▲이현주(불문·3) ▲차영순(불문) ▲이정한(행정·1) ▲은희진(경영·2) ▲김연숭(유전·3) ▲문희남(기계·2) ▲변민석(원자력·4) ▲조용준(체육·2) ▲이한(체육) ▲류수현(검도부)

습 득

분실자 편집실로

【서울캠퍼스】◇가방=▲배창환(한의예·93) ◇지갑=▲하영배(행정·90) ▲한정희(영문·94) ◇학생증=▲김민정(간전·94)

【수원캠퍼스】◇지갑=▲이후민(일문) ◇도서대출증=▲정기웅(산업공·92) ◇학생증=▲차진규(일문·88)

동문모임

영생고 동문회

【서울캠퍼스】▲영생고=오는 7일 오후6시 체대앞 녹원 ▲전주(여)고=오는 9일 오후6시 경희회관

【수원캠퍼스】▲안동향우회=오는 9일 오후 5시30분 공대식당 ▲미림·남강고=오는 10일 오후 5시 캠퍼스호프

◇방중체험기 ①…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을 만나

노·학 영원한 동반자

노동기본권 무시되는 현실은 가라

'9월 1일 오후 6시 경찰 조계사 투입, 7월 4일부터 60일째 농성중이던 전기협, 전지협 노조간부들 구속'

지난 6월말 철도 노동자들의 부정에 대해 무차별 탄압을 가하며 학원, 기독교회관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침탈과 연행이 자행되더니 결국 조계사에 공권력이 투입되었다는 소식이 2일자 일간지에 일제히 실렸다.

'국가의 동맥'이라는 철도가 멈추고 '시민의 발'이라는 지하철이 멈추자, 지금까지 협상 과정에서 무성의와 비협조로 일관하던 정부는 파업이 일어나자 신속하게도 여론을 조정하고 공권력을 투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노동자들은 온갖 회유와 탄압에 맞서서 꿋꿋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들이 현장으로 복귀한 것은 대행사고의 위험을 무시한 채 운영되는 기차와 지하철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며 그것은 패배도 싸움의 끝도 아니었다.

우리는 우리 학교에 들어온 서울지하철 차량지부 조합원 2천여 명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서울지하철 노조조합원들과 함께 두차례에 걸친 대국민 선전전을 벌였고, 전지협 농성장 소인 명동성당에 지지방문을 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 26일과 27일에는 노조 통장 기업류 조치에 대한 투쟁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일호프를 열었는데 많은 학우들이 함께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그때 아저씨들은 단지 우리가 경희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백주 2병을 서키면 1병을 덤으로 줄 정도로 우리학교와 전지협의 유대는 각별한 것이었다.

오는 19일에 있을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지기로 했던 ILO 가입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이 발락되더니 급기야는 조계사에까지 공권력투입이 이루어졌다.

이는 상반기 전기협, 전지협 투쟁으로 강하게 제기된 민주노총 건설을 분쇄하기 위한 술책일 뿐이다.

실제 노동자도 아닌 학생의 입장에서 노동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학생도 졸업하면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예비노동자인 것이다. 굳중의 삶을 강요당하고 기본권리인 단결권이나 파업권마저 무시되는 노동자의 현실은 결코 나 아닌 남의 문제만은 아니다.

노학연대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인 것이다.

박 동 재
〈신방·89〉

◇방중체험기 ②… 범민족대회를 다녀와서

매년 그러했지만 특히나 올해로 다섯번째 맞는 범민족대회는 정부의 불허 방침에 따른 사전탄압이 어느해보다도 광폭했다.

사전행사 개최 장소였던 건국대 주변은 온통 군홧과 방패, 페퍼포그로 원천봉쇄되었기 때문에 13일의 개막식은 연기되어질 수 밖에 없었다. 모든 언론에서는 범대회 개막식이 불가능하리라 보도했고 실제 우리들도 분산 개막식 정도가 가능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정부의 봉쇄망을 뚫고 건국대 대합숙에서 피흘리며 얻어가는 수많은 동지들과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권력이란 점을 지고 다쳐나가는 전경들의 모습속에서 더이상 문민정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범대회 사수와 통일의 신념으로 싸운 사수대의 투쟁으로 우리는 무사히 통일의 빔을 보낼 수 있었고 15일 마지막 범청학련회의를 치르기에 이르렀다.

범청학련회의 보고와 폐막식을 거행하려던 순간 다시금 우리는 문민의 허울을 보게 되었다.

집에한 대합숙에서 피흘리며 얻어가는 수많은 동지들과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권력이란 점을 지고 다쳐나가는 전경들의 모습속에서 더이상 문민정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범대회 사수와 통일의 신념으로 싸운 사수대의 투쟁으로 우리는 무사히 통일의 빔을 보낼 수 있었고 15일 마지막 범청학련회의를 치르기에 이르렀다.

범청학련회의 보고와 폐막식을 거행하려던 순간 다시금 우리는 문민의 허울을 보게 되었다.

경찰이 대합숙에서 피흘리며 얻어가는 수많은 동지들과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권력이란 점을 지고 다쳐나가는 전경들의 모습속에서 더이상 문민정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범대회 사수와 통일의 신념으로 싸운 사수대의 투쟁으로 우리는 무사히 통일의 빔을 보낼 수 있었고 15일 마지막 범청학련회의를 치르기에 이르렀다.

범청학련회의 보고와 폐막식을 거행하려던 순간 다시금 우리는 문민의 허울을 보게 되었다.

통일운동 확대계기

허울 문민정부 탄압속 남북통일의지 드높여

고 전국의 노동자, 농민, 시민, 학생들이 서울대로 집결하던 순간 그 어떤 물리적 힘도 수많은 이들의 통일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아주 단순명료한 진리를 새삼 느끼게 하였다.

지역별 사수결의대회를 마치고 개막식 및 국토순례단 환영식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도 않아 경찰은 거대한 물리력을 앞세워 정문을 뚫고 행사개최 장소앞까지 밀고 들어왔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창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진정영화나 UIP의 폭력물에서나 볼 수 있던 헬기가 반세기전 조국 해방의 함성으로 수놓았던 하늘을 괴음을 내며 가르기 시작했고 대한민국 경찰이라고 쓰여진 그 헬기는 대한민국의 민중들에게 오색가지 빛의 액체를 뿌려대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그 액에 맞아 괴로워하는 사람들, 이리저리 피하는 사람들, 다시금 어제의 악몽이 되살아 나는듯 했다. 하지만 그 까짓것이 뭐 대수랴. 비날, 성과를 찾고싶다.

아직은 통일을 자신과 민족의 사명으로 절실히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식상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원래부터 길이란 없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숲을 헤치며 가게 되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는…….

통일의 길 또한 마찬가지다.

어차피 우리 대에 가야할 길이라면…….

이 정 호
〈문리대 물리·91〉

朔風

정치인 정말 잘났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무엇인가'라는 외국의 오래된 우스갯 소리가 있다.

세 남자가 있었는데 그중 한명이 자기는 농부이며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바로 농부라고 말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럼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 것 같으냐'며 자신의 직업이 더 오래되었다고 말했다. 마지막 한사람은 구석에서 파식 웃으며 '세상을 만들기 전의 혼돈은 누가 만들었을 것 같냐'며 자신의 직업은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즉, 정치인은 이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는 일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비아냥거림이다.

최근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음직임을 바라보면 그 비아냥거림이 단순히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내무부는 얼마전 경기도를 한강을 중심으로 북도와 남도로 나누려던 계획을 유보하고, 대구·인천·부산직할시를 확장, 광역화하고 울산시를 직할시로 승격시키는 등의 제2차 행정구역개편안을 발표하여 또다시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행정구역 개편안은 내년으로 다가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그 동안의 주민 숙원사항을 가부간 매듭지어야 할 상황'이 도래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미 1차로 33개 시·군의 통합이 있었다.

그러나 그 시군 통합에 있어서 주민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곳도 있어 지역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음이 드러났으며, 심지어 주민의견조사 투표과정에서 공무원 및 통·리·반장이 의견조사표를 배부하면서 즉석에서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등 부정이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행정구역은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없애고 국가의 행정을 간소화하며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행정구역의 조정은 중앙정부에서 원칙을 제시하고 지역주민과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당사자들이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확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행정구역의 최소단위는 마을이다. 예로부터 이 마을이란 하천과 산 등 지리적인 요건으로 규정지어졌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강을 건너고 산을 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편히 살 수 있도록 행정구역을 짜는 것, 아니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행정구역이라는 것이다.

물론 모든 것이 록잡아게 변한 현대사회에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지방세 수입의 균형과 지리적인 여건, 주민들의 정서도 고려하여야 하며 행정편의, 선거구에 따른 문제 등도 생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의견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있는 듯 없는 듯 사람들이 그저 신경을 쓰지 않고도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정치, 사람들의 복잡한 머리에 더욱 복잡한 정치인들의 계보를 씌우지 않아도 되는 정치, 그저 편히 살아가는데 훼방놓지 않는 정치, 참다운 정치란 그런 것이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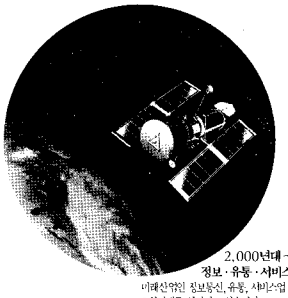
정치적 당리당략 때문에 '보통 사람들'을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지금의 정치는 결국 이 나라를 대초에 신이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기 이전의 혼돈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행위인 것이다.

〈落見〉

동양그룹이 점점 더 젊어지고 있습니다

50년대 ~
국가기간산업
국가재건의 주역이 되었던 시멘트산업과 식품산업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몫을 담당했습니다.

80년대 ~
종합금융산업
제 2 금융권의 핵심분야인 증권, 단자, 보험 등을 거느린 종합금융. 명실공히 경제부국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2,000년대 ~
정보·유통·서비스산업
미래산업인 정보통신, 유통, 서비스산업 등으로 2천년대를 앞장기고 있습니다.

국가기간산업에서 미래정보산업으로—
동양그룹은 발빠르게 미래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결이 있길래 나이가 늘수록 점점 젊어질까요?
그 해답은 미래를 미리 살아가는 미래마인드입니다.
50년대 우리의 경제현실에서 꼭 필요했던 시멘트와 식품산업에 한발 앞서 뛰어들었고, 80년대를 이끌었던 종합금융산업의 기치를 누구보다 앞서 내걸었습니다.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온 21세기—
우리의 미래는 정보, 유통, 서비스산업으로 압축됩니다.
동양그룹은 이미 이러한 미래산업을 시작했습니다.
영원히 젊은 동양그룹, 계속 지켜봐 주십시요.

동양그룹

동양시멘트·동양제과·동양증권·동양투자금융·동양생명보험·오리온프리토레이·동양매직·동양해운·동양마트·동양창업투자·동양투자자문·동양선물·동양SHL·동양신업기계·동양파이낸스·서남재단